

온방을

경북 교육 WEBZINE

지역 특화 교육정책
:지역에서 답을 찾다

2024년 여름호
Vol.06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목차

지역 특화 교육정책 :지역에서 답을 찾다

온방울이란?

경북교육청에서 분기마다 발간하는 교육
관련 주제 잡지로 몸과 마음을 자라게 하는
방울들이 모여 새로움을 이뤄낸다는 뜻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전체를 이루듯
경북교육의 새로운 정보 하나하나를 모아
따뜻한 경북교육을 이루겠습니다.

01 지역에 묻다

—

- 06 지금 지역이 중요한 이유: 가치, 공간, 사람
조희정(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10 교육발전특구와 자공고 2.0 관점에서 본
지역 특화 교육정책의 필요성
김규태(계명대학교 교수)

02 지역이 답하다

—

- 20 왜, 글로컬인가
박지현(경상북도교육청 정책혁신과 주무관)

- 22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
정수정(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 미래 교육 모니터단)

03 지역을 그리다

—

- 40 영·호남 홈스테이 교류를 다녀와서 1
박서진(양서초등학교 5학년)

- 43 영·호남 홈스테이 교류를 다녀와서 2
김다원(장흥중학교 2학년)

- 46 함께하는 하모니! 함께하는 글로컬교육!
이지민(구미왕산초 6학년)

- 50 우리의 생각을 마음껏 펼칠 시간,
청소년 교육정책 제안마당
김예원(이서고등학교 2학년)

- 56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참여하며
망다호(영주고등학교 1학년)

- 59 공생의 교육 현장, 글로컬 미래교실
도예린(남양초등학교 교사)

- 67 전남교육 희망포럼, 미래교육의 희망을 보다
박효진(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교육연구사)

- 71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다녀와서
정수정(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 미래 교육 모니터단)

01

지역에 묻다



지금 지역이 중요한 이유:

가치, 공간, 사람

조희정(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교육발전특구와 자공고 2.0 관점에서 본

지역 특화 교육정책의 필요성

김규태(계명대학교 교수)



한국은행이 발간한 24년 3월 '지역경제보고서 이슈분석'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등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가 가속화되는 수도권 집중화와 연관되어 있는 만큼 지역에 대한 가치를 다시 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지역이 중요한 이유와 지역 특화 교육정책의 필요성을
지역에 물었다.**

지금 지역이 중요한 이유: 가치, 공간, 사람

조희정(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1. 지역의 현실

① 많은 이름, 깊은 편견

우리 사회에는 지역의 또 다른 이름이 많다. 시골, 변두리, 지방, 촌 등이 그것이다. 어디나 지역이고, 서울에도 이런저런 지역이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 속의 지역은 각기 다른 명칭만큼 각기 다른 편견 속에 차별을 드러낸다. 낙후되어 있는, 접근하기에는 너무 먼, 그만큼 교통이 불편한, 도시 스타일의 인프라가 없는, 그런 곳으로만 쉽게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엔 더욱 쉽게 그런 곳으로 여기곤 한다.

우리가 사는 삶의 공간으로서 지역을 올곧이 이해하려면 우리 안의 편견과 직면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권 인구 2,200만의 지독한 거주 편중 현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디에나 사람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평등한 시각으로 다양성과 자족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이자 장소로서 지역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② 다양한 지원금, 빈약한 공간

지역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진행되고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지원금이 집행된다. 정부 회계 특성상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내에 지원금 투입 대비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야 지원금 지급의 정당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지원금은 주로 건물 짓기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

“보세요. 세금으로 이런 멋들어진 건물을 지었답니다. 짜잔!” 이런 느낌이다.

그렇게 지어진 건물을 누구라도 좋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은 뒤로한 채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드웨어 우선의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엔 살 곳, 모여서 소통할 곳, 출길 곳이 부족하다. 또한 낙후공간 유휴공간은 늘고 있고 여기에는 폐교도 포함되어 있다. 어떤 활동이든 목적에 맞게 필요한 공간이 있는데 제자리를 제공하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지역의 상실감은 더욱 깊어진다.

③ 사는 인구, 움직이는 인구

과거에 주목하던 인구 단위는 주민과 관광객이었다. 주민은 지역에서 살면서 꼬박꼬박 주민세를 내면서 지역을 지키는 존재로서 중요했고, 관광객은 기꺼이 와주는 손님일 뿐만 아니라 나서서 지갑을 열어 지역 특산품을 구입하고 먹거리와 볼거리 지출을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므로 중요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민 외의 존재도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다. 나고 자란 곳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타지역을 업무, 학업, 취업, 자원봉사, 체류 등을 위해 이동하는 인구들이 등장했다.

관광 부문에서도 새로운 관광유형이 등장했다. 대형버스 대규모 관광이 여전히 대세이지만 개인 관광, 가족 관광, 또래 관광같은 소규모 관광뿐만 아니라 공정 관광, 스마트 관광 같은 새로운 가치와 취향의 관광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팬데믹 위기를 겪으면서 대형관광 의존 지역은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그럴수록 새로운 관광 형태는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동일본대지진 피해복구를 위해 타지역으로 움직인 청년 자원봉사자들의 이후에도 이어진 관계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관계인구' 개념은 지금 지역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인구층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주민, 체류자, 외국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생활인구'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2. 지역의 과제

삶과 생활을 구성하는 요소는 매우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지역 문제도 단지 편견, 공간, 사람만 문제라고 단언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늘 익숙한 문제는 의료, 교통, 주거, 일자리, 교육, 문화예술 부문에 산적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향적 인식, 활용되지 않거나 부족한 공간, 그리고 다양한 행위자 활동의 지역내 허용은 모든 부문의 지역문제의 근간에서 작동하는 근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① 편향적 인식을 다양성 인지로 극복

각자도생 무한경쟁만으로도 힘들고 벅찬 삶 속에서 내가 사는 지역을 제대로 알고 관심 갖기도 어려운데 다른 지역에 대한 편견까지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제도 교육에 '지역 다양성의 이해'라는 과목이 만들어진다면 과연 그 편견은 제대로 고쳐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 속 경험을 통해 뿌리 깊게 형성된 편견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지방을 보는 시각이나 지방에서 서울을 보는 시각이나 마찬가지 문제다.

그러나 지금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역 평등학, 모두 함께 만드는 지역 교과서 등의 작업을 통해 교육과 실천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의 다양성을 올곧이 세울 필요가 있다. 무미건조한 행정구역명으로 표현되는 무생물같은 곳, 주민조차 찾지 않는 지루한 역사 유적지와 전통문화만 있는 곳, 지역내 다운타운조차 너무 멀어서 이동하기 어려운 곳, 서울에는 성공의 판타지가 있고, 지방에는 리틀 포레스트의 판타지가 있다는 식의 인식구조로는 이른바 인구감소를 막기 어렵다.

관심 없어서, 불편해서, 싫어서, 심지어 몰라서 가지 않고 살지 않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다. 지방자치 30여 년에도 해결되지 않던 이 오래된 문제의 해결이 절실하다.

② 지역의 제3의 공간은 다다익선

유휴공간, 폐공간, 낙후공간의 개조와 활용이 시급하지만 그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공간의 목적이다. 흔히 제1의 공간은 '집'이고, 제2의 공간은 '직장'이라고 한다. 누가 뭐래도 살 곳과 일할 곳은 필수라는 의미다. 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필요한 공간은 제3의 공간이다. 이미 지역에 복합문화공간이나 소통협력공간 등이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상징하는 것은, 누구라도 편하게 부담없이 오가며 소통하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 종교적 장소, 스포츠 활동 공간, 마을회관 등도 일정 부분 그런 기능을 한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 사람의 흐름이 더 많이 자유롭게 형성되어야 한다.

특수한 단체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대화의 공간, 학교나 학원 아닌 또래 친구들과의 놀이의 공간, 부업이나 취미활동을 위한 배움의 공간, 다양한 활동성과를 전시하며 모두 즐기는 공간, 나아가 낯선 외지인이 호기심으로 방문해도 기꺼이 손을 잡고 이끌며 지역살이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야말로 지역에서 더 많은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다다익선의 공간이다.

③ 정주, 체류, 이주의 허용

헌법에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고 귀농귀촌의 역사도 이미 오래되었지만 새롭게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지역에 연착륙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모든 부담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뜻이다.

그러다보니 어느새부턴가 귀'농'귀촌보다는 귀'향'귀촌이라는 말이 더 현실적인 말이 되었다. 귀농인들은 거의 없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인만 있다는 의미다.

한편으로는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지만 행정기관으로 찾아간들 자세한 이주정보를 알기 어렵다. 인구감소네, 지역소멸이네 하지만 이주전문안내부서는 없는 것이다.

앞서 공간 부문에서 강조했듯이 이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살이안내소가 필요하다. 지역자원, 경제활동, 추천장소,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곳이다. 일본에서는 이런 곳을 관계안내소라고 부른다. 관광안내소가 지역 명승지 관광안내지도만 나눠주고, 특산 품만 팔고, 심지어 지역 주민은 거의 갈 일이 없는 곳이라면, 그 기능을 확장한 곳으로서 여러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방문하여 지역의 인구유입 흐름을 촉진하는 곳이 바로 관계안내소다.

3. 지역의 미래

가치, 공간, 인구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변화는 시작될 수 있지만 그 변화가 획일적인 발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모두 도시 수준의 발전을 성취하기 위해 변화를 도모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또 하나 더 유념할 것은 누군가의 지금의 희생을 통해 밝은 미래를 아이들에게 물려준다는 의미도 넌센스라는 사실이다. 미래는 아이들만의 것이 아닐 뿐더러, 지금 지역의 중요성과 현실극복 활동에는 아이들도 중요한 주체라는 의미다. 누구하나 배제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또래와 더불어 만든 미래여야 온전히 나와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지금 지역 밀착형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누구 하나

배제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또래와 더불어 만든 미래여야

온전히 나와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발전특구와 자공고 2.0 관점에서 본 지역 특화 교육정책의 필요성

김규태(계명대학교 교수)

경북에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와 자공고 2.0는
지역교육발전의 마중물!

지역 특화 정책은 지역 정주 조건 개선과
지역교육의 우수 모델 창출과 확산에 기여!

1. 들어가며

올해 3월초 정부는 교육발전특구의 시범지역과 자율형공립고(이하 자공고) 선정 학교를 발표하였다. 경상북도는 교육발전특구로 포항, 구미, 상주, 울진, 안동-예천은 선도지역으로, 칠곡, 봉화는 관리지역으로, 울릉은 예비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구미고, 안동여고, 포항고, 포항여고, 울릉고 등이 자공고 2.0 학교로 선정되었다. 자공고 2.0 선정 학교들은 교육발전특구 지역에 속한 학교들이다. 교육발전특구가 지역교육 발전을 통한 지역 정주 개선을 지향하고, 자공고 2.0은 지역 우수 교육 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위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교육발전특구와 자공고 2.0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과의 협력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자체의 지원 확대, 규제 합리화 등의 전략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교육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또한, 상향식 정책 추진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하는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다양한 지역 특화 교육 모델 및 특례를 발굴하여 지역교육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사업이다. 한편, 자공고 2.0은 열려 있고 다양한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고도화함으로서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여 '찾아오는' 지역 교육 우수모델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교육발전특구와 자공고 2.0 사업은 공히 지역 내 공공기관, 대학, 기업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교육력을 제고하여 지역정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들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교육발전특구와 자공고 2.0 사업을 개관하고 이들 사업들이 지방교육 발전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이들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필요 한 점들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교육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는 경북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통해 경북 지역의 인구 감소 및 정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사업이다. 또한, 경상북도청, 경상북도교육청, 지역 대학 및 기업 등 지역교육 당사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특색 있는 지역 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사회와 학교교육을 동반 성장하도록 촉진하는 상향식 지역 사업이다. 무엇보다도 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가 협력 축으로 역할을 하고 여기에 대학,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이 참여하는 일반자치-교육자치 간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프로그램이다.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통한 경북교육의 발전의 마중물 효과는 정책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1) 교육발전특구의 정책적 효과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지역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하여 경북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경북 지역 내 취·창업을 유도하여 경북 지역의 정주 조건을 개선하여 경북 지역 소멸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경북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 지역교육 관련 당사자로부터 인적, 물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이들과 함께 지역교육의 우수 모델들을 창출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경북 지역 산업 및 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학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경북만의 지역 교육 전략과 과제를 탐색 및 적용할 수 있다. 넷째, 경북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창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특례를 발굴하여 최적화된 경북교육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2) 교육발전특구의 교육적 효과

교육발전특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이르는 지역교육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혁신적 국가 지원 프로젝트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우선 경북 지역 특색에 맞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사업을 추진하여 경북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보육 및 방과(전)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교육청과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학습, 진로진학, 미래교육 등을 위한 경북 지역의 초·중등학생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경북 지역 내 우수 공립고를 육성하여 특성화 교육과정과 혁신적인 학사관리 모델을 창출하여 지역 교육 모델 창출 및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 대구경북 지역 대학 및 혁신가와 함께 공영형 아카데미나 수준 높은 방과후학교 활동을 제공하여 사교육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할 수 있다. 다섯째, 대구경북 지역대학의 특별전형 확대와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정주를 유도할 수 있다. 다섯째, 대구경북 지역대학과 지역 산업체의 우수 인력과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지역 학교의 교육력 향상은 물론 지역주민 및 기업 임직원의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3. 자공고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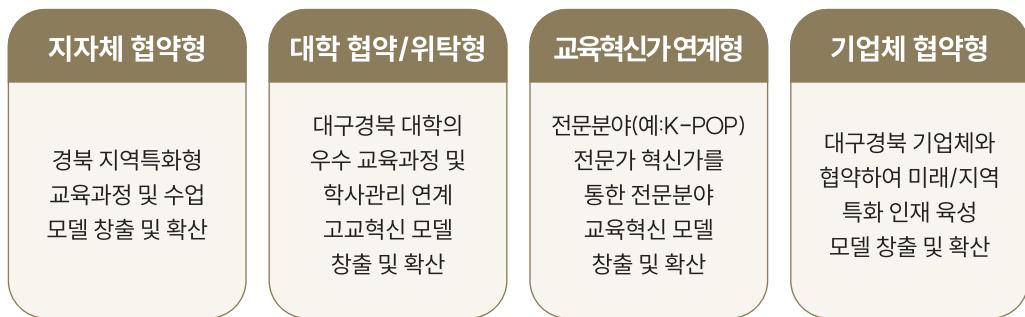
자공고 2.0은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산업체, 교육혁신가 등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실현하는 사업이다. 자공고 2.0은 기존 단위학교의 교원, 자원, 재정만으로 이루기 어려운 혁신적 교육과정(예: 공공의료 전문인재 과정, AI 및 디지털 인재 과정 등의 선택교과 개발 운영)과 학사관리를 대구경북 지역대학이나 기업 등과 공동 개발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요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자공고 2.0의 주요 특징

구분	자공고 2.0
법적 지위	• 교육감이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과의 협약을 통해 운영되는 일반계 공립고
협약 주체	• 훈령 10조에 따라 교육감과 지자체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대학, 기업, 교육혁신가
지정방식과 기간	• 5년 운영(재지정 가능)
운영 목표	• 지역 정주 여건 조성 및 발전을 위한 지역 교육 우수 모델 창출
교육과정	• 자공고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을 위한 연구학교 •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율이수학점(90학점) 자율편성
학사관리	• 조기입학/졸업, 수업 일수(시간) 증감, 무학년제 등 학사 자율화 • 학교장에 교과목 개설권을 부여 • 협약에 따라 학사 자율성 확대
교장임용	• 교장 공모제(개방형 공모제 도입 예정)
교사 임용	• 100%까지 교원 초빙 가능
거버넌스	• 교육청,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약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성과관리	• 협약운영위원회(가칭)에 의한 운영성과평가(자체평가+재지정평가)
재정지원	• 교육부 1억, 교육청 1억 + α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유형은 **[그림 1]**과 같이 협약 주체에 따라 지자체 협약형, 대학 협약형, 기업 협약형, 교육혁신가 연계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 자공고 2.0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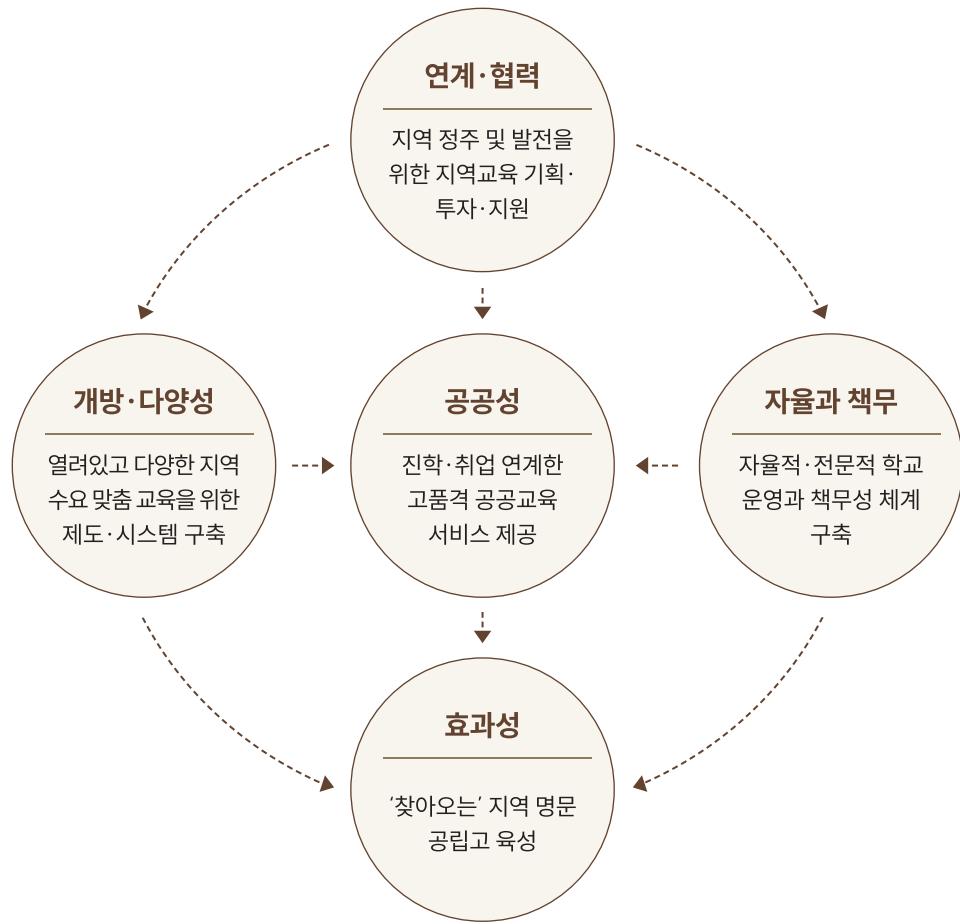
자공고 2.0은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혁신적인 학사관리를 통해 경북 지역의 명품 공립고를 육성할 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의 우수 교육 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함으로 지역 고교 교육력 제고를 견인하는 마중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 자공고 2.0은 경북 지역 고등학교의 자율적·전문적 학교 운영 체제를 구축하여 혁신적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을 제공함으로 경북 지역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 및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 지역 고등학교의 책무성 체계 강화를 통한 교육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와 지속적인 학교 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 셋째, 진학·취업과 연계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교육의 공공성을 고도화할 수 있다. 넷째, 지자체, 교육청, 지역대학, 지역산업체, 교육혁신가 등과 연계 협력을 통한 경북 지역 우수 교육 모델 창출함으로써 경북 지역의 정주 조건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4. 교육발전특구와 자공고 2.0의 연관성

교육발전특구와 자공고 2.0은 경북 지역의 정주 조건 개선과 발전을 위해 경북 지역 교육 당사자들의 연계 및 협력을 바탕으로 열려 있고 다양한 지역수요 맞춤 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 자율적·전문적 학교운영과 책무성 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성 및 효과성을 고도화하는 정책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그림 2] 교육발전특구와 자공고 2.0이 추구하는 정책가치와 목표



교육발전특구와 자공고 2.0은 열려 있고 다양한 지역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공공성 고도화 및 자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하는 교육 우수모델 창출을 위한 정책목표와 수단이 비슷한 사업이다.

[그림 3] 교육발전특구와 자공고 2.0 정책방향과 목표

자공고 2.0이란?

다양한 지역 맞춤 교육과정과 시스템을 갖추며 지역교육의 우수 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지역 명품 공립고

"열려 있고 다양한 지역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공공성 고도화 및 자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하는 지역 우수 교육 모델 창출"

자공고와 교육발전특구의 효과적 연결

자율형 공립고와 교육발전특구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지역에 맞는 다양한 교육제공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의 열린 소통과 협력 강화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의 열린 소통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지역의 다양한 교육 수요 맞춤형 시스템 혁신과 최적화된 교육 환경 조성 및 지원

자율과 전문성 기반 학교 운영 체제 구축

자율적·전문적 학교 운영 체제를 구축하여 혁신적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을 제공하여 지역 학생의 학업 성취 및 성장 촉진

학교 책무성 강화로 지속적인 학교 성과 개선

학교 책무성 체계 강화를 통해 교육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와 지속적인 학교 성과 극대화 및 개선

진학·취업과 연계된 교육 공공성 고도화

진학·취학과 연계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교육의 공공성 고도화

지역 명문 공립고 육성으로 지역 정주 및 발전 도모

다양한 지역에서 찾아오는 지역 명문 공립고를 육성함으로써 지역 정주 인구를 증대하고 지역 균형발전 도모

교육발전특구와 자공고 2.0의 연계에 있어 가장 큰 시너지 효과는 앞서 제시한 <표 1>의 자공고 2.0의 교육과정과 학사관리 등에 대한 주요 특징에 대해 교육발전특구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자공고 2.0 예산과 행재정 지원에 대해 교육발전특구 관련 행재정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특례로 교육발전특구 유공 교원에 대한 가산점이나 인센티브 제도가 생긴다면, 자공고 2.0을 통해 받는 교원연구비에 대해 교육발전특구 유공 교원 가산점이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5. 교육발전특구와 자공고 2.0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교육발전특구와 자공고 2.0이 지역교육 발전의 마중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현장 교사들의 정책 수용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최근 교직에서는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나 업무를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고, 교직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 정책 사업을 학교교육에 이식과 접목하려면 지역 학교 교사들이 이를 환영하여 적극적인 정책수용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지원책을 면밀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교육발전특구와 자공고 2.0은 경북 지역의 지자체, 교육청, 지역대학, 산업체 등의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경북 지역 공교육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상향식 정책 사업이다. 물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교육감) 간 연계 협력도 중요하다. 하지만,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실질 사업추진 주체인 단위학교의 장과 초·중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경북 22개 교육지원청의 참여와 역할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교육발전특구나 자공고 2.0 사업의 운영 주체가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교육발전특구 및 자공고 2.0 추진을 위한 전문적 컨설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역 및 학교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공고 2.0 협약 유형 선정과 협약운영위원회 등 구축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약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활용한 학교 내부 역량을 강화시켜 운영 계획을 내실화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특성화 모델 운영에 대한 컨설팅도 필요하다. 자공고 2.0 협약 유형 및 협약기관의 강점 등을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과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정책환경 반영을 통한 단위학교 및 지역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자율적 교육 모델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공고 2.0 관련 특례 및 지원사항 활용 방안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즉, 자공고 2.0 관련 학사운영, 교원 등 특례 및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활용 방안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자공고 2.0 관계자에 대한 연수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교육발전특구와 자공고 2.0 관련 연수에 있어서 학교·교육청, 협약기관 등 자공고 2.0 담당자의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 기본방향 안내, 전문가 강연, 컨설팅 사례 및 계획수립·운영사례 등을 포함한 연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공고 2.0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우수 사례 발굴·공유 등과 관련된 연수도 필요하다. 끝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공고 2.0 간 협업 등을 위해 단위학교, 교육청과 협약기관(지자체, 기업, 대학 등)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수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유형의

자공고 2.0 간 협업 등을 위해
단위학교, 교육청과 협약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수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02

지역이 답하다

글로컬교육
Glocal Education

Joint Declaration of the Future of Education

GLOCAL

왜, 글로컬인가

박지현(경상북도교육청 정책혁신과 주무관)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

정수정(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 미래 교육 모니터단)



뚜렷하게 잡히지 않는 글로컬과 미래교육의 모습을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 종합선물 세트로 꾹꾹 눌러 담았다. 유일무이한 각 지역만의 고유한 컨텐츠로 꾸며졌던 부스와 영호남이 어우러졌던 오케스트라, 경북-전남-해외 학교가 함께 수업하며 시공간을 허물었던 미래교실 등

우리가 궁금했던 모든 것, 글로컬 미래교육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지역이 답한다.

왜, 글로컬인가

박지현(경상북도교육청 정책혁신과 주무관)

글로컬(Glocal)이란 세계를 뜻하는 글로벌(Global)과 지역을 뜻하는 로컬(Local)의 합성어로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말한다. 지역을 살리는 세계화란 말은 모순처럼 느껴진다. **세계**[•]와 **지역**^{••}의 사전적 의미는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글로컬의 개념은 세계적인 기업 맥도날드 영업전략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맥도날드는 기본 메뉴와 제품은 유지하되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인 글로컬, 현지화시킨 메뉴도 개발한다. 한국의 대중적인 입맛을 고려한 불고기버거에서부터 이제는 특정 지역의 농산물로 만든 진주고추크림치즈버거, 진도대파크로켓 등으로 좀 더 깊게 지역의 문화를 반영한다. 스타벅스의 서울 인사동과 경주의 한옥매장 등도 글로컬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세계 속의 지역, 지역 속의 세계 글로컬은 산업계 뿐 사회 전반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글로컬 교육에 대해 논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전남교육청, 교육부, 전남도청, 경북교육청이 공동주최하여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는 글로컬을 지역 중심의 교육생태계 속에서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추어 지역, 국가, 세계와 공생하는 인재로 돋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글로컬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궁금증은 박람회장을 방문한 관람객으로 입증되었다. 2024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전라남도 여수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는 약 45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응답율이 87%를 **상회**^{•••}하였다. 이 같은 결과 등 미래교육에 대한 요구로 박람회 코너 중 하나인 글로컬 미래교실은 8월 말까지 연장운영하기로 결정되다. 글로컬 그리고 미래교육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
- 지구 상의 모든 나라, 또는 인류 사회 전체. 대상이나 현상의 모든 범위
 -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어떤 기준에 의해 특정 지어지는 공간적 영역
 -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관람객 만족도 조사 '합격점', 연합뉴스, 2024.6.18.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한 박람회는 100여 명 연사의 강연, 22개국 참석, 62개 기업과 58개 교육기관 부스, 1,591개 각종 부스, 1,107명 학생, 5개 섹션 139개 프로그램, 59시간 미래교실 수업 등으로 구성하여 미래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일 먼저 새롭게, 보다 높이 이루고, 가장 널리 누리자’라는 비전 아래, 세계교육 표준이 되고 있는 경북교육청은 박람회에서 경북교육관 운영과 홈스테이, 미래교실, 전남&경북 학생 오케스트라 공연,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청소년 정책제안, 교육정책 포럼 등에 참여하며 전 세계인과 경북의 미래교육을 선보이고, 공유하였다. 유일무일한 고유한 컨텐츠만으로 가득 차운 경북교육관과 박람회 중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세계 속에서 융화되는 법을 보여준 경북교육은 고유한 지역의 이야기가 세계가 되고, 세계는 곧 지역의 힘이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논쟁을 포용으로, 타문화를 다문화로, 작은 학교를 강한 학교로, 만들어 주는 지역의 힘이 모여 세계를 이루는, 지역의 서사가 글로벌이 되는 경북교육의 진면모를 박람회의 모습을 통해 소개하려 한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

정수정(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 미래 교육 모니터단)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5월 29일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개막했다. 6월 2일까지 5일 간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박람회는 교육공동체가 그리는 K-EDU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박람회 첫날, 5월 29일, 3시간이 넘는 시간을 달려 여수에 도착했다. 미래교육의 방향과 글로컬 교육에 대한 고민을 전하고 싶어 경북교육청 학부모 미래교육 모니터단으로서 참여하였다.

개막식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하여 임종식 경북교육감, 김대중 전남교육감, 김영록 전남지사 등 전국 시·도교육감 등의 내외빈과 학생·학부모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부·전라남도교육청·경상북도교육청·전라남도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2024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렸다.

- ▶ 전 세계 22개국 및 대한민국 교육지도자 32명이 참여한 글로컬 교육 공동 선언식





박람회 기간 중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비롯한 교육관계자들의 경북교육관으로 발길이 이어졌다. 6월 2일 폐막식에서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이번 박람회는 교육이 지역과 국가, 세계와 공생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각자의 지역사회에서 나눈 경험을 실천하며 미래교육을 실현해 나가자”는 말로 마무리를 하였고, 전 세계 22개국 및 대한민국 교육지도자 32명이 ‘글로컬 교육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그 뜻을 함께했다. 그 뜨거웠던 분위기를 생생히 전한다.



1. 폐회 선언 중인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
2.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여수세계박람회장
3. 개막식이 열린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엑스포홀
4. 개막식 행사



미래교육 박람회 프로그램

미래교육을 보다. 콘퍼런스 및 교육관 전시

교육 전문가의 강연과 각 국가 및 교육 기관의 전시 부스 운영으로 우수한 사례 공유하고 체험의 기회도 제공하였다.

1. 국제교육 콘퍼런스

글로컬, 미래교육과 관련된 주제로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 캘리포니아대 데니스 홍 교수 등 12개국에서 참여한 국내외 연사 100여 명이 참여하는 49개의 콘퍼런스가 마련되었다. 개막식 기조강연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공정과 정의,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는 '공생의 교육'에 관해 강연하였다. 각종 세미나와 세션에서는 국내외 교육 전문가들이 미래 교육의 방향과 고민을 공유하였다.

2. 국제 교육관

22개국이 각 국가의 미래교육에 관한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체험의 기회도 제공했다.





4. 교육맛집, 경북교육관: 제일 먼저 새롭게, 더 높이 이루고, 가장 널리 누리자!

'당신처럼 빛날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경북교육의 미래교육 방향과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있었다. 미래교육과는 반대되는 레트로 컨셉으로 8부스와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는 경북교육관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3. 대한민국 교육관

경북 및 전남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의 미래교육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 맞춤 특색 교육과정을 체험할 수 있었다.



4-1. 미래로 PC방

생성형 AI로 구현되는 각종 교수학습과 업무용 사이트, 툴을 경험해볼 수 있다. 학교업무 지원에서 맞춤형 체험학습 정보 까지 제공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학교지원 종합자료실부터 최근 구축한 정보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디지털 지식마루'를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되어 있었다.



4-3. 따뜻한 경북 R컴퓨터

디지털 교육 노하우를 세계와 함께 나누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에티오피아와 과테말라, 몽골 등에 대한 정보화 교육지원과 재생 컴퓨터 보급사업을 만날 수 있었다. 부스에서 인생네컷 사진찍기를 할 수 있어 관람객의 재미를 더해주었다.



4-4. 태어난 김에 한국유학

올해 전국 최초로 5개국 56명(베트남 35명, 몽골 8명, 태국 8명, 인도네시아 4명, 캄보디아 1명)의 해외 우수 유학생이 경북 직업계고 및 일반계고에 입학하였다.

해외 우수 유학생에게 글로벌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내 기업에 취업, 정착으로까지 이어져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의 방안이 될 수 있길 바란다.



4-5. 교육맛집 TV

가로 6m, 세로 4m 대형 TV를 통해 경북 교육의 다양한 모습과 우수한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었다.



4-6. 학습자 주도성

‘학생 생성 교육과정’과 ‘온학교’, ‘도전 꿈 성취 인증제’* 등 세 가지 콘텐츠를 소개하면서 미래 사회가 필요한 학습자 주도성을 기르기 위한 경북교육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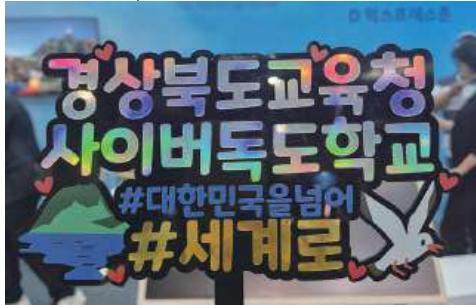
- 인문, 봉사, 체육, 예술, 외국어 영역에서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가며 잠재 능력과 끼를 발견하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자기성장 프로그램



온학교 YouTube

4-7. 사이버 독도학교

2021년 4월 26일 개교한 사이버 독도 학교는 한글은 물론 영문판까지 구축되어 있어 외국인도 회원가입 및 방문할 수 있다. 개교 이후 누적 망문자 수가 14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단연 독도 교육의 세계 표준이라 말할 수 있었다.



4-9. 체험활동

교육맛집 컨셉에 맞게 앞치마를 한 운영진들이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경북교육청의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체험하고 맛볼 수 있어 다시 찾고 싶은 맛집, 교육 맛집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미래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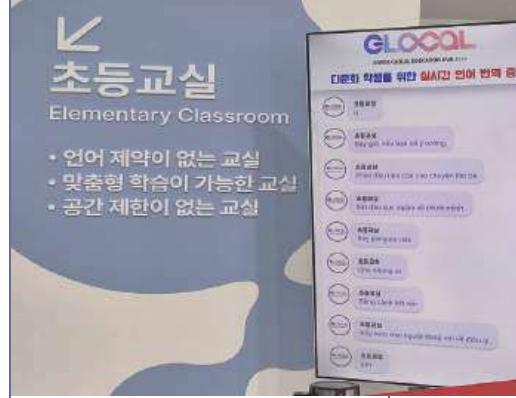
총 59시간, 139명의 교사와 1,1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해 일본과 중국 등 다양한 국가와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선보이는 미래교실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교육의 만남으로 미래 수업을 담을 수 있는 2030 미래교실을 구축한 모습을 미리 만나볼 수 있었다. 사전 신청을 통해 이루어졌고,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했다.

1. 초등 수업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이야기를 꾸미기' 주제로 동산초(전남) 학생들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학생주도형 글쓰기 수업이 진행되었고, 세계 각국의 여러 학생·사람들과 만나 소통하고 있었다.

2. 중등 수업: 물리. 생태전환

이번 수업에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로 만들어가는 친환경 전라남도'라는 주제로 순천미래과학고 강대혁 선생님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순천미래과학고(전남), 도초고(전남) 학생들과 원격으로 성주고(경북) 학생들이 함께 ALC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은 켄텍형 미네르바 토론수업의 형태로 'R 보드'를 활용해 학생들의 활박한 토론 참여를 도왔다.



3. 온라인 육놀이를 통한 건강 체력 증진 신체활동

체육 교사가 있는 학교, 체육 교사가 없는 학교 등 현재 전남이 마주하고 있는 체육 교육의 지역적 현실을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하여 학습권은 지역과 빈부 격차에 상관없이 같다는 것, 그리고 팀 단위 활동을 통해 건전한 경쟁의 경험을 실험할 수 있었다.



4. 프로젝트 교실

'기후야! 너무 빨리 변하지마! 우리가 힘 들잖아!'라는 주제로 도등학생들(경북 남양초 등)의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되었다. 전문가에게 우리 지역의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였다. 학생들은 메타버스 전시관에서 우리 지역의 기후 변화 문제를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로컬 문화예술 교류

세계 청소년들이 문화를 공유하며 다른 이를 이해하고 공생으로 나아간다.

박람회에서는 23개 문화 예술 프로그램으로 80여 개 국내외 공연팀과 7개국 4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문화 예술을 통한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1. 학생예술 페스티벌: 전남&경북 학생 오케스트라 동아리 공연

정문 광장 무대에서는 전남 & 경북 학생 오케스트라 동아리 공연이 있었다.

29일에는 경북의 구미왕산오케스트라(구미왕산초)와 영일윈드오케스트라(영일중)의 공연이 있었고, 임종식 경북 교육감을 비롯하여 경북학부모회장들이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참석하였다.

구미왕산오케스트라^{●●}는 위풍당당 행진곡 1번, 4번, 밀레니엄을 연주하였고, 영일윈드오케스트라^{●●●}는 African symphony, Symphonie fantastique finale(Arr. for Marching Band), Deep Purple Medley – Toshihiko Sahashi를 연주하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2022년 대한민국 학생 오케스트라 경연대회 대상 수상

●●● 2023년 대한민국 학생 오케스트라 경연대회 중등 부문 금상 수상



2. 진로 토크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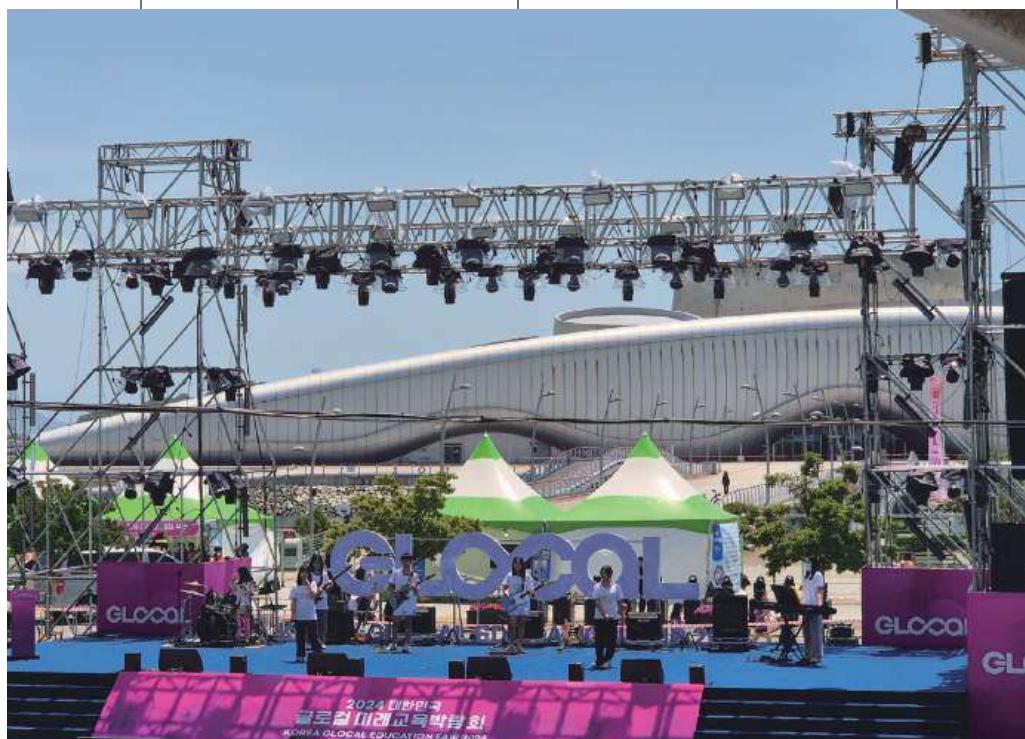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는 진로 토크 콘서트는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직업인과 청소년 관심분야 멘토들의 토크 쇼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3. K-아티스트 버스킹

국내외 학생들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문화로 소통하는 곳.

미래의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공연과 국내 유명 댄스 크루의 스트리트 댄스공연 및 챌린지 춤을 배워보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진로 교육박람회 꿈을 향한 도전 미래의 새로운 나

진로 교육박람회는 자기 이해관, 진로 진학탐색관, 진로직업체험관, 진로설계관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는 초등학생들과 달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도와 진로에 맞는 체험 활동을 하였다.

“해병대, 특전사와 함께하는 마린챌린지”에는 남학생들이 모여있었고, 뷰티, 퍼스널 컬러와 이미지 메이킹 부스에서는 여학생들의 대기 줄이 길었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본인의 관심분야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험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 오늘의 진로 체험 활동을 통해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1. 해병대, 특전사와 함께하는 마린챌린지
2. 뷰티, 퍼스널컬러와 이미지 메이킹 부스
3. 진로 교육박람회 현장

교육축전 독서문화 한마당

엑스포컨벤션센터 1층 로비에서는 스마트 놀이터, 미디어 아트 월, 미래도서관 VR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고, 엑스포 광장 및 녹색 쌈지 숲 일원에서는 행사장 내 정해진 코스에서 책을 주제로 다양한 미션 도서 관련 기념품이 제공되고 있었다.

책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 행사가 펼쳐지고 있었다. 전라남도 교육청 소속 도서관, 도내 학교 도서관, 도내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부스를 운영하였다.

해양문화체험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길 바다!'를 주제로 해양문화 체험 활동이 준비되어 있었다.

체험 활동으로는 바다에서 만나는 외교 조선통신사, 이순신의 물결 해군 함대 승선 체험, 난중일기로 읽는 전남 義(의)- 해군 교육사령부 취타대 퍼레이드가 여수박람 회장함(여수신항)과 엑스포 힐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역사적인 막을 올렸다.

지역이 주도하는 미래 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교육 대전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개기가 될 것이다.
이번 박람회를 통하여
지역이 주체가 되어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03

지역을 그리다

영·호남 홈스테이 교류를 다녀와서 1

박서진(양서초등학교 5학년)

영·호남 홈스테이 교류를 다녀와서 2

김다원(장흥중학교 2학년)

함께하는 하모니! 함께하는 글로컬교육!

이지민(구미왕산초 6학년)

우리의 생각을 마음껏 펼칠 시간, 청소년 교육정책 제안마당

김예원(이서고등학교 2학년)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참여하며

망다흐(영주고등학교 1학년)

공생의 교육 현장, 글로컬 미래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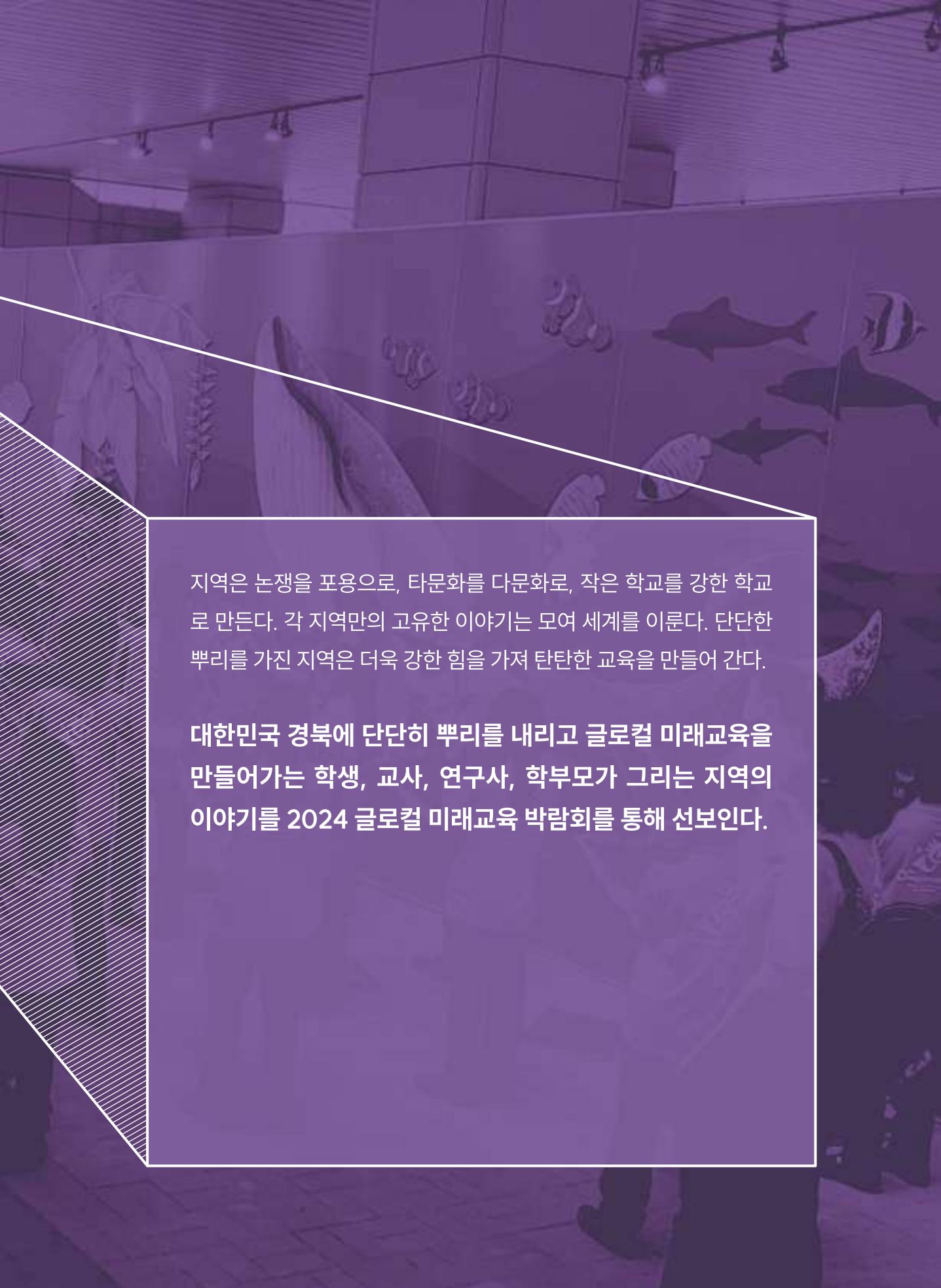
도예린(남양초등학교 교사)

전남교육 희망포럼, 미래교육의 희망을 보다

박효진(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교육연구사)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다녀와서

정수정(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 미래 교육 모니터단)



지역은 논쟁을 포용으로, 타문화를 다문화로, 작은 학교를 강한 학교로 만든다. 각 지역만의 고유한 이야기는 모여 세계를 이룬다. 단단한 뿌리를 가진 지역은 더욱 강한 힘을 가져 탄탄한 교육을 만들어 간다.

대한민국 경북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글로컬 미래교육을 만들어가는 학생, 교사, 연구자, 학부모가 그리는 지역의 이야기를 2024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통해 선보인다.

(01)



2024 영·호남 홈스테이 교류를 다녀와서 1

박서진(양서초등학교 5학년)

5월 29일 드디어 여수로 떠나는 날이다. 여수는 작년에 가족여행으로 갔던 곳이어서 좋은 기억을 가진 지역이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친구와 함께 버스에 올랐다. 4시간 동안의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창밖 풍경도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웅천초등학교에 도착했다. 우리 학교보다는 조금 오래 되고 커보였다. 시청각실에 입장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매칭친구를 만났다. 매칭친구가 6학년 형이어서 조금 긴장했는데 다행히도 형이 나랑 성격이 비슷해 금방 친해졌다.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고 드디어 여수의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장에 도착하였다. 형의 친절한 안내로 모터를 이용한 선풍기 만들기를 하는 부스에서 직접 만들고 원리도 배우니 머리에 쑥쑥 들어왔다. 그리고 프레첼을 이용한 쿠키를 만드니 잠시나마도 제빵사가 된 기분이었다. 마지막으로 샌드아트체험을 했는데 영상으로만 보던 샌드아트를 직접 보고 느끼니 신기하고 멋있었다. 생활 속 흔한 것들도 조금의 창의력만 추가하면 예술이 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맛있는 해물삼합으로 저녁을 먹고 K-POP 콘서트장으로 이동했다. 앞자리에서 여러 가수들의 공연을 보며 환호성도 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공연을 관람한 후 홈스테이 가정에 도착해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다.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마음이 편해졌다. 형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 정성껏 준비해주신 아침을 먹었다. 나의 부모님 없이 혼자서 자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착한 형의 가족을 만나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어 감사했다. 형과 함께 등교를 하는 동안 나눈 소소한 이야기들도 기억에 오래 남는다. 영·호남 홈스테이 교류 학생들 모두가 웅천초등학교에 모여 예술랜드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트릭아트 뮤지엄이라는 곳에 갔는데 착시를 이용해서 만든 여러 가지 그림들에서 사진을 찍으니 실제로 내가 추락하거나 바닷속에 빠지는 듯한 생동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온몸이 아찔했던 공중그네와 오션스카이워크를 체험했다. 정말 짜릿한 경험이었다. 이제 준비한 일정이 끝나가 형과 선물교환을 했다. 헤어질 때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조금 울컥했다. 조금 뒤 형이랑 작별인사를 하며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1박2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그만큼 나에게 행복하고 값진 경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래오래 잊지 못할 것이다.



(02)



2024 영·호남 홈스테이 교류를 다녀와서 2

김다원(장흥중학교 2학년)

처음 학교에서 '여수에서 홈스테이를 한다'고 들었을 때, 처음 접해본 소식이라
갈까말까 고민이 되었다. 고민 끝에 가겠다고 결정했을 땐 설렘 반, 기대 반 그리
고 어색한 마음이 함께 들었다.

당일날, 친구들과 버스에 올라 옆자리 친구와 재잘재잘 떠들면서도 마음 한켠
엔 나와 오늘 함께 할 친구가 어떤 친구일지 너무 궁금했다. 홈스테이할 집이 바닷
가 근처라고 하는데 어떤 곳에서 생활을 할지도 궁금했다. 내가 어릴 적에 여수에
있는 순천만이라는 갈대밭에 가본 적이 있어서 집 주위에 갈대밭이 있는 상상을
하며 혼자 피식 웃었다.

여수로 향하며 곳곳마다 가는 휴게소가 너무 즐거웠다. 왜냐하면 도착할 시간
이 다가오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나의 친구 민주가 다니는 웅천중학교 도착! 설레
는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해 나의 친구 민주를 만났다. 민주는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예쁘고 착했다. 그리고 나를 보며 미소 띤 얼굴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민주와
함께 학교 도서관에서 엽서도 쓰고 인스타 맞팔도 하니 어색함이 나도 모르게 없
어지는 것 같았다.

그 다음 장소인 엑스포에 도착하여 K-POP 공연에서 오마이걸이라는 가수를
보았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 중 한 명인 오마이걸을 보니 올해의 행운이 나에게 온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민주와 함께 K-POP 공연을 보면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돌이켜 생각하면 이 시간이 참 기억에 남는 순간이다.

그리고 다음 장소는 두근두근.

내가 제일 기대했던 민주네 집이다. 주위를 둘러보니 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바
다가 있었지만 갈대밭은 없었다. 내가 여수를 여행했던 곳이랑 달랐지만 바다가
너무너무 파랬다. 그래서 예뻤다. 민주 부모님께서 우리를 태우러 와주셔서 편안

하게 민주 집에 도착했다. 저녁도 맛있게 차려 주시고, 상냥하게 말씀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민주 엄마도 우리 엄마처럼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았다.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다 잠자리에 누우니 내일 아침에 헤어진다는 생각으로 몹시 아쉬웠다. 아쉬운 마음에 밤 늦도록 민주와 학교생활을 이야기하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 장도에 갔다. 푸른 광경이 펼쳐진 산이 눈 앞에 있었다. 우리는 장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예술랜드에서 트릭아트를 보니 너무 신선했다. 스카이워크에도 들렀는데 포항에 있는 스카이워크와 달리 바닥이 뚫려있어서 너무 무서웠다.

민주와 마지막 인사를 하며 헤어지고, 떡을 좋아하는 엄마를 위해 딸기 모찌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에 탔다. 돌아오는 내내 너무 아쉬웠다. 어제와 오늘, 행 복했던 기억만 남기고 집으로 돌아간다.



(03)



함께하는 하모니!
함께하는 글로컬교육!

이지민(구미왕산초등학교 6학년)

2024년 5월 29일 우리 왕산오케스트라는 여수에서 열린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서 열린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공연을 다녀왔다. 지난 달에 선생님께서 우리 오케스트라가 경북대표로 여수 글로컬박람회에 초대받았다는 소식에 나와 우리 단원들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었다. 작년 교육부 오케스트라 대회에서 대상을 발표할 때의 기쁨이 채 가시기전에 이런 큰 행사를 하게되어서 뿌듯함과 설레임을 느꼈다. 특히 올해는 왕산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서 공연에 대한 기대와 책임감 다른 공연과는 달랐던 것 같다.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매일 아침 연습과 오후 레슨, 합주로 최선을 다해 연습을 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매일 같이 하던 연습이었지만 경북 대표로 연주한다는 마음은 내 어깨를 무겁게 했다. 무대 위에서는 항상 즐겁지만, 연습은 항상 즐겁지는 않다.

공연 당일 5월 29일, 새벽 6시에 일어나 공연에 올라갈 수 있도록 머리를 묶고 오랜만에 단복도 차려입었다. 6시 30분부터 악기와 악보를 다 챙겼는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고 버스에 올랐다. 여수로 가는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느라 못 잔 부족한 잠을 자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여수로 가는 4시간 동안 공연할 연주곡을 머릿속으로, 손가락으로 생각하다보니 어느덧 여수에 도착했다.

여수에 와서 우리가 공연할 장소를 보니 힘이 났다. 사진으로 선생님이 보여주신 무대보다 훨씬 커 보였고, 옆 주차장에는 버스가 300대는 주차되어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넓은 공간을 찾아 리허설을 시작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치 공연을 보듯 귀 기울여주고 관심을 가져줘서 더욱 힘이 났다. 햇볕이 쨍쨍한 조금 무더운 날씨였지만 야외 대기실의 무대 또한 우리를 배려하듯 그늘막이 마련되어 있어서 대기하는 동안에도 불편함이 없었다.



드디어 우리 공연의 순서.

무대에 올라보니 무대 위에는 마이크도 많이 설치되어 있었고, 특히 배경으로 설치된 큰 스크린은 우리 오케스트라를 더욱 웅장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다. 보통 대부분의 무대는 이 정도로 크지 않고 스크린도 없었는데 이번 무대는 좌석도 충분하고 생각보다 관중도 많았다. 야외무대의 멋진 지붕과 때마침 불어왔던 시원한 바람은 우리를 격려하듯 포근히 감싸주는 것 같았다.

우리는 에드워드 엘가(Edward Elgar, 1857-1934)의 위풍당당행진곡 4번, 밀레니엄, 위풍당당행진곡 1번 순으로 3곡을 연주했다. 연주는 항상 긴장되지만 특히 이번 야외 공연은 관중들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더욱 긴장되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지휘자 선생님의 지휘 아래 단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한 음씩 집중하다 보니 아름다운 하모니가 완성되었다. 우리 왕산의 하모니는 여수의 하늘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는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관중석에는 평소에 SNS를 통해서 자주 봤던 교육감님도 자리하여 함께 박수를 쳐주고

계셨다. 무대에서 내려오니 노란 머리의 외국인 여러 명이 와서 잘했다고 엄지손가락을 위로 치켜세우면서 칭찬해주었다. 그리고는 과자를 선물로 주셨는데 한국에는 없는 특별한 것이라고 했다.

글로컬이란 세계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갖추어 세계와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라고 했다. 서로 말이 통하지는 않았지만 음악은 서로 통했던 것 같다. 칭찬해주던 외국인 아저씨의 표정과 공연이 끝난 후 우리 아빠의 표정이 똑같았다. 최선의 노력에 대한 감사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아 우리에게도 최고의 순간이었다.

올해 우리 왕산 오케스트라가 그려갈 미래 교육의 모습이 더욱 기대가 된다. 우리가 이런 최고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지휘자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성실하게 처음과 끝을 같이 해준 우리 단원들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04)



우리의 생각을 마음껏 펼칠 시간,
청소년 교육정책 제안마당

김예원(이서고등학교 2학년)

저는 이서고등학교의 '정치와 법' 교과를 함께 수강하고 있는 친구들과 4명의 팀을 꾸려 '2024. 청소년 교육정책 제안마당'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면서 청소년 교육정책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참신한 교육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매우 설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행사에서 경험한 다양한 일들과 배우고 느낀 점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학생들이 직접 청소년 교육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 교육정책 제안마당'

저는 이 '청소년 교육정책 제안마당'이라는 행사를 학교 게시판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이 행사를 보자마자 현재 정치와 법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친구들에게 함께 참여할 것을 권유하게 되었고, 흔쾌히 수락해 준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 교육정책 제안서를 준비하여 서류 심사에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서류 심사 통과 후 본 행사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 교육 박람회' 축제의 장 속에서 발표회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교육정책 제안은 물론 글로컬 미래 교육박람회의 취지도 함께 알아보며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청소년 교육정책 발표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청소년 교육정책 제안마당을 위한 준비 과정

기세 좋게 시작하였지만, 청소년 교육정책 제안서 제출과 발표회까지의 준비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주제로 교육정책을 제안할

것인가 결정하는 데 오랜 협의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협의 결과 저희 팀은 현재까지 시행된 적 없던 혁신적인 정책보다는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개선하고 싶었던 점을 실현해 보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정책제안을 고민하던 저는 학교에서 늘 강조하는 독서와 수행평가에 착안 하였습니다. 수행평가로 많은 교과목에서 독서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책을 읽는 학생은 매우 적으며 독서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독서와 가깝게 지내라는 학교, 교육의 의도와 달리 독서와 거리는 더 멀어지고 있으며, 독서뿐만 아니라 긴 문장의 글을 읽는 것과도 멀어져 문해력 부족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말로만 강조하는 독서가 아닌 실제로 학생들이 독서를 즐기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들에게 저의 의견을 제안했고, 친구들 또한 교과목에만 치중된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함께 책 읽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저의 의견과 친구들의 의견을 모아 '독서 & 독후 활동 활성화로 인한 자기 계발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 갔습니다.

1차 서류 심사 통과 후 행사를 주관하는 전남교육정책연구소의 피드백 결과를 받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책이라는 것이 의견만 제안한다고 해서 곧바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요구하는 내용만을 포함해서는 정책을 제안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로부터 받은 피드백 내용을 중심으로 친구들과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지 고민하는 과정이 어렵기도 했지만, 최선을 다해 실현할 수 있는 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발표 자료를 만들고 발표 연습을 하고, 팀원들끼리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 포인트들을 파악하여 질의응답을 하는 연습 시간도 가지며, 우리의 제안이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고 실제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3. 그동안 갈고 닦은 우리의 정책을 펼친 제안마당 경험담

열심히 준비했지만 실제로 '청소년 교육정책 제안마당 발표회'가 예정되어 있던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는 '2024 글로컬 미래 교육박람회'가 진행되고 있어 인파가 많았고, 발표회장 안에도 심사위원, 지도교사, 발표가 예정된 학생 등 많은 사람이 있어서 순간 굉장히 놀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람도 잠시 팀의 팀장으로서 우리가 준비한 것을 후회 없이 펼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최대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팀원들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행사는 중학생, 경북교육청 소속 고등학생, 전남교육청 소속 고등학생 순으로 진행되었고, 발표 순서를 번호 뽑기로 뽑은 후, 중학생부터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중학교 순서가 끝난 이후, 경북 고등학생 중 2번째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무대로 올라가 앞을 바라보는데 순간 너무 떨리기도 하고, 이렇게 본선 발표회에 와서 우리가 만든 정책을 심사위원들에게 소개한다는 것이 뿐 듯하기도 했습니다. 발표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발표 시간 4분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마음을 졸이기도 했으나, 연습한 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질의 응답시간에 사전에 팀원들과 모의 질의응답 때 예상했던 질문이 나와서 조금은 여유 있게 답변할 수 있어 다행이기도 했고, 노력한 만큼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팀원들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학교의 다른 팀과 전남교육청 소속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참신한 정책과 곧바로 시행해도 될 정도로 체계적인 정책들을 보면서 스스로 심사위원처럼 평가해 보기도 하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팀이 제안한 정책에서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하면 좋았을 부분과 아쉬웠던 점, 잘한 점 등을 되돌아보며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정책 제안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심사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아 궁금하였지만, 수상의 기쁨보다는 배움이 더 많았던 행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제안한 청소년 교육정책을 관계자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좋은 경험이라는 이야기를 팀원들과 나누기도 하였는데 추후 확인한 심사 결과에서 우수상을 받게 되어 매우 놀랍고 행복했습니다. 팀원들 모두 나아갈 사회에 구성원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사회적 경험을 미리 경험해 보는 더없이 좋은 시간이었기에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행사에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전체적인 교육정책 제안 후기

앞서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듯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우리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속으로만 생각했던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 행사뿐만 아니라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사회현상에서 여러분도 스쳐 지나기만 했던 불편한 점, 변화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탐구해 보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가팀의 팀들만의 개성이 담긴 정책들을 보며 정책이 시행되었을 시 변화할 한국 교육정책과 운영 방안이 기대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이 주장한 교육정책인 독서를 수행평가와

같은 평가에서 벗어나 즐기면서 독서하고, 독서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팀이 제안한 교육정책이 당장 교육정책에 반영되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킬 수 있듯이, 저희의 제안도 부족하지만 언젠간 잘 다듬어져 좋은 정책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5)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 참여하며

망다흐(영주고등학교 1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철도고등학교 운영정보과에 재학 중인 몽골 유학생 망다흐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12회 경상북도교육청 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이번 대회는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고, 부족한 한국어 실력이지만 저의 진로 계획과 대회에 참가한 소감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기차와 철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몽골에서는 철도가 중요한 교통수단 중 하나로, 기차를 타고 광활한 초원을 여행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어릴 때부터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철도에 대한 꿈을 키워왔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철도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고 정밀하게 운영되고 있어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철도고등학교 운영정보과에 입학한 것은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철도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IT 기술과 결합된 철도 시스템 운영에 대한 수업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선진 철도 시스템을 배우면서, 이를 몽골의 철도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의 진로 계획은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몽골의 철도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몽골의 철도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철도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 철도공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구를 통해 실무 능력을 쌓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철도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과 몽골, 나아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교통 허브를 만드는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중언어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의 진로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고, 몽골의 문화를 한국 친구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중언어로 제 생각과 계획을 표현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대회 당일, 무대에 올라 두 언어로 제 이야기를 전할 때는 긴장도 되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려와 칭찬을 받아 더욱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는 저에게 언어와 문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어 공부를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선생님들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저의 꿈을 이루고, 한국과 몽골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6)



공생의 교육 현장, 글로컬 미래교실

도예린(남양초등학교 교사)

5월 29일 전남교육청과 교육부·전남도·경북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 교육박람회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막하였다. 이번 박람회는 '공생의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를 슬로건으로 글로컬 미래 교육 콘퍼런스, 미래 교육 전시, 미래교실 운영, 다양한 교육축전과 문화 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지역과 세계 학교의 연결을 통한 지역의 특수성 및 세계의 보편성 교육 실현, 실천적 환경 교육을 통한 지역과 녹색 지구를 지키는 인재 양성, 지역과 국가·세계와 공생하는 포용적인 세계 시민 양성 등을 약속했다.

위 약속의 실천 모습으로 박람회에서는 미래 교실을 운영하여 전남 목포용해초, 전남 완도보길초, 경북 울릉남양초, 필리핀국제학교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적응하기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지금부터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1. 너무나도 어려운 에듀테크, 하지만 이제는 필수

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둘 중 정말 아날로그에 더 익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지 교실 속에서도 각종 에듀테크를 이용한 수업보다는 아날로그식 노작 활동이 편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내가 잘 접해보지 않은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시·공간을 극복한다는 점이었다. 수업에 사용한 에듀테크에는 클래스툴, 메타퀘스트 VR, 퀴즈앤, 구글아트앤컬쳐, 패들렛 등이 있었다. 이 중 평소에 교실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었지만 클래스툴이나, 구글아트앤컬쳐, 메타퀘스트 VR의 경우는 이번에 처음 접해보는 에듀테크였다. 수업 전 온라인 교실 수업자인 내가 에듀테크를 익히느라 조금 진을 뺐다.

어느 정도 내가 에듀테크를 익힌 후 프로젝트 도입 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아이들도 에듀테크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아이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빠른 시간 내 에듀테크를 익혀서 놀랐다. 또 수업 중에 에듀테크 사용 시 몰랐던 부분도 아이들이 검색을 통해 알려주곤 했다.

생각보다 에듀테크를 익히기 쉬웠고 수업에 적용했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번 프로젝트를 끝내도 계속 사용할 것 같다. 다만 VR의 경우 학생들에게 수업에 관한 관심을 끌 수 있었지만 컨텐츠 구입 비용과 기기 구입 비용 대비 수업 목표 도달에 도움이 되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메타퀘스트 VR 사용 모습〉

2. 기후변화, 우리 모두의 문제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는 에듀테크와 시공간 연결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하기 프로젝트 '기후야, 너무 빨리 변하지마! 우리가 힘들잖아'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는 자연과 생태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

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학교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이의 대처 방법에 대해 지도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생태전환교육주간, 탄소중립 시범학교, 탄소중립 실천교실 등의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우리 반 학생들은 이중 탄소중립 학생동아리를 운영하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어 프로젝트에 잘 참여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아무래도 공개수업이 있다보니 교사의 발문에 다양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토의·토론 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시작하기 전 '기후변화' 관련 도서 1권을 한 학기 한 권 읽기 차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읽었다. 읽으며 모르는 단어를 알아보기도 하고 관련 기사를 찾아보기도 하였다.

3. 이번 프로젝트는

이번 프로젝트는 29일, 30일 양일간 총 8차시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앞서 말했듯이 '기후야 너무 빨리 변하지마, 우리가 힘들잖아'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1-2차시에서는 '지금 우리 지구는?'라는 학습 주제로 남극체험 VR, 각종 에듀테크, 기후변화 전문가와 기후변화 문제 인식 활동을 진행하였다. 3-4차시는 '기후위기 조사하기'라는 학습주제로 기후전문가, 메타버스 전시관을 활용하여 기후위기에 대해 조사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5-6차시는 모둠별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도출하고 이를 표현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우리 동네 기후 대응전'을 실시했다. 7-8차시는 '2074년 기후변화, 생존게임'이라는 체험형 게임 앱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실천 의지를 내면화하였다.

4. 실제 수업에서는

우리 반은 29일 프로젝트 가장 앞 차시에 참여하여 공개수업을 진행하였다. 나머지 차시는 모두 공개하지 않고 각 교실에서 진행하도록 계획하였다.

아이들에게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업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동기 유발이 된 것 같았다. 특히 필리핀 국제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업한다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것 같았다.

또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발표하는지 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아이들 넷뿐인 교실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울릉도라는 도서벽지 여건상 기후변화전문가를 만나기 어려운데 광주기상청 연구원님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이 부분도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었다.



〈기후변화 전문가와 만남 모습〉

특히 마지막 활동인 '퀴즈앤' 앱을 이용한 학교 대항 퀴즈 대회에서 아이들이 승부욕이 발동하여 4학교 중 꼭 1등을 하겠노라 진지하게 임하였다. 변화 없는 도서벽지 소인수 학급에서 승부욕이란 교실에서 보기 힘든 것이었는데 아이들의 승부욕 있는 모습이 나로서는 참 신기했다.



〈퀴즈앤을 통한 반별 대항전 모습〉

5.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수업의 목적이 미래에는 어떻게 교실이 운영될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참여할 교사들과 수업에 사용될 각종 에듀테크 및 줌을 공개수업 전에 미리 점검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개수업 도입 부분에서 사용된 메타퀘스트 VR의 미러링 기능이 계속 오류가 났다. 미러링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아이들과 나는 당황해서 수분을 미러링 오류 해결에 사용했다. 그래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서 충분히 VR 기기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도입 부분에서 VR을 활용한 남극 탐험을 하고 클래스툴로 다음 활동을 하려 했는데 클래스툴에서 '중복된 번호' 오류로 계속 접속이 되지 않았다. 이런 오류가 사전에 발견되어서 혹시 이런 경우 QR코드로 들어갈 수 있게 사전에 준비해 두어 위기를 극복했다.

그럼에도 클래스툴이 계속 필요했기 때문에 수업 중에도 계속 협력 교사 선생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문제를 해결해 갔다. 이러는 동안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6. 의의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적 특수성과 보편성 교육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 어쩔 수 없이 등장했던 비대면 교육과 에듀테크가 지금은 미래 교육의 한 방향이 되었다.

비대면 교육의 방법과 이를 위한 다양한 에듀테크를 통해 우리는 시·공간적 제한을 넘어서 아이들에게 지역적 특수성을 유지하며 도서 벽지 아이들에 게도 보편적인 수업을 제공했음에 의미가 있다.

더불어 도서벽지 특성상 수년간 변화 없는 교실에 경쟁은 잘 찾기 어려웠는데 여러 학교가 모인 수업 속에서 서로 독창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이라 생각 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 본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해 보며 세계 시민으로서 실천 의지를 내면화하는 계기를 가졌다.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인증 모습〉

(07)



전남교육 희망포럼, 미래교육의 희망을 보다

박효진(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교육연구사)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함께 고민하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주최하는 ‘전남교육 희망포럼’에 토론자로 참가 가능하신가요?”

경북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교육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인구를 유입하는 방안을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여 교육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토론자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였다.

포럼의 주제는 ‘전남학생교육수당과 교육의 공공성’으로, 전남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도내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바우처 형식의 교육수당을 지급하여 학생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정책을 운영 중이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여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논의 사항을 제안하고, 유사한 교육 현안을 가진 두 교육청의 협력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문을 작성하며 포럼을 준비하였다.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다

드디어 전남교육 희망포럼이 개최되었다. 포럼은 김대중 전남교육감께서 '전남지역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지속적 지급이 필수적이기에 정책의 효과성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격려사로 시작되었다. 기조 강연을 맡은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공공재의 차원에서 보편화하고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임을 발표하였다. 이어 김이수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남학생교육수당의 공공성에 관한 인식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정책 만족도가 높고 교육활동과 교육복지 관련 영역에서 적절한 사용처에 사용되는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전남교육청의 노력에서 교육정책 수행에 있어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정책 평가 시스템이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주제 발표 후,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시작되었다. 경북교육청을 대표하여 전남학생교육수당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한 실질적 교육 여건 개선 효과에 대한 의문, 수당 지급의 기준과 방식에 대한 공정성 시비라는 우려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 활성화와 인구 유입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의 정책 이해 제고, 체계적인 정책 검증 체계 마련, 거시적 교육정책의 동반 추진 등 다각도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경북교육청의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전국 최초 외국인 유학생 유입 프로그램, 경북형 늘봄학교, 특화 교육과정 등의 정책을 소개하며 전남교육청과의 협력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유사한 교육 현안을 가진 교육청 간의 정책 공유와 협력은 우수 정책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의 교육 발전과 인구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이들의 삶으로 가득 찬 지역 교육의 미래를 보다

이번 포럼을 통해 올바른 교육의 길을 함께 모색하고 교육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고, 아이들의 삶이 성장하는 지역 교육의 희망을 보았다. 오늘의 노력은 지역 교육 생태계를 풍요롭게 하고, 아이들이 나고 자라고 살아가는 삶이 있는 지역 공간을 만드는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계속해서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나는 전남교육 희망포럼에서 우리 미래교육의 희망을 만났다.

(08)



2024년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다녀와서

정수정(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 미래 교육 모니터단)

경상북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 교육 박람회가 5월 29일부터 5일간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 홀에서 화려하게 개막되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 미래교육 모니터단으로 이번 박람회가 열리는 첫날, 29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양극화 심화 등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교육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생의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날부터 학교에서 단체로 참가한 학생들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 국제관 4동마다 다양한 전시관이 운영되었고, 야외 체험 부스들이 즐비하였다.

경북교육관-제일 먼저 새롭게, 더 높이 이루고, 가장 널리 누리자!

경북교육청은 '교육 맛집, 경북교육관'이라는 별도의 전시관을 구축하여 경북교육청 생성형 AI,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사이버 독도학교, 학생 생성 교육과정 등 10여 개의 콘텐츠를 통해 세계 표준으로서의 경북교육을 널리 알리고 있다.

경북교육관 입구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미래로 PC방 코너에서 경북교육청 생성형 AI로 구현되는 각정 교수 학습과 업무용 사이트, 툴을 경험할 수 있고 설치되어 있는 PC 화면에서 예쁜 사진도 담을 수 있었다.

미래로 PC방 체험 후에는 팸플릿에 숨겨진 단어를 맞추고 포춘 쿠키를 선물 받았다.



이어서 100% 온라인 맞춤 교육 [Curri-살롱] 부스가 운영되고 있었다.

경북 온라인 학교는 지정형 교육과정과 주문형 교육 과정이 있는데 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이름을 보고 반가웠다.

학생들이 실제 수업하는 방법을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고, LP판처럼 전시된 강좌를 스캔하면 해당 수업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직업계고 우수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태어난 김에 한국 유학] 코너가 기다린다.

4개국에서 경북 8교의 특성화고등학교로 유학 온 학생들과 돌림판으로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그 나라 문화에 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독도 교육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실천하는[사이버 독도학교], 온학교, 도전 꿈 성취에 인증제 등 미래 사회가 필요한 학습자 주도성 교육 프로그램이 소개 되어 있었다.

입구에는 포춘쿠키부터 중앙에 있는 쌀 팡팡 뺑튀기, 출구에 설치된 팝콘까지 체험뿐만 아니라 먹거리까지 다양한 경북교육관이었다.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북교육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박람회였다. 이번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경북교육 뿐 아니라 16 개 시도 교육청의 부스와 행사를 통해 지역에서 시작되는 교육이 결국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지역에 기반을 둔 경북교육은 어느덧 외국 고등학생이 유학을 오는 우수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앞으로의 경북교육과 각 특색있는 지역의 교육을 응원한다.

온방울

2024년 여름호

Vol. 06

발간등록번호 2024-24

발행일 2024. 7.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

발행인 경상북도교육감

총괄 정책혁신과장 김현광

편집주간 정책혁신과 정책기획담당 홍성종

편집담당 정책혁신과 주무관 박지현

주소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연락처 TEL. 054-805-3107 FAX. 054-805-3149

홈페이지 <http://www.gbe.kr>

디자인인쇄 진진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